

보도 일시	배 포 시	배 포 일시	2022. 11. 23.(수)	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강석민 (02-2100-2790)
	감사담당관	담당자	주무관	김대경 (02-2100-2794)
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종훈 (02-2100-2970)
	전자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안영비 (02-2100-2975)

금융위원회,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-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(11.14~11.25./2주간) 중 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-

- 금융위원회는 11.23일 오후 3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금융전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.
- 훈련에는 금융위원회, 한국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, 한국 거래소, 코스콤, 금융결제원 등 10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.

<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요>

- **(일시·장소)** '22. 11. 23.(수) 15:00~16:30,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
- **(훈련내용)** 전산센터 화재 발생 및 운영 중단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숙달
- **(참가기관)** 금융위원회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금융보안원, 일산소방서 등 10개 기관

- 훈련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산센터 운영이 중단되고,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악성코드 포함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,
- 전산센터 화재진압 현장훈련과 상황전파·위기평가·대응기구가동 등의 재난대응과정 전반에 대한 토론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.

- 최근의 전산센터 화재 및 운영 중단 사고사례를 참고하여, 금융 국가 핵심기반에서 동일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와,
 - 재해복구센터 전환시간 단축 방안 등 금융전산 재해복구체계 개선을 위한 참여기관 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.
- 금융위원회 사무처장(이세훈)은 모두말씀에서, 금융서비스의 정보 기술 활용·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도 향상되었지만 잠재위험요인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,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려는 훈련 등의 노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재난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.